

원저

최근 10년간 국내 뜸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

신정미 · 강미숙 · 송호섭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The Review on the Domestic Studies of Moxibustion

Shin Jung-mi, Kang Mi-suk and Song Ho-sueb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trend of the Moxibustion-related studies and to establish the hereafter direction for the study on Moxibustion.

Methods : We reviewed the domestic articles published last ten years(2000~2009).

Results : We have searched 45 articles in 4 journals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Korean Oriental Medicine, Korean Meridian & Acupoint, Korean Oriental Internal Medicine.

1. There were the most research done 2003, 2008. Both of them have 8 articles. In other years there were 2 or more articles.

2. The pattern of study was as follow: the clinical studies were 23, studies of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new moxibustion method were 9, the philological study were 5, the reviewed studies were 3, the experimental studies were 2 and the others were 5. The rate of clinical studies was increased.

3. In the clinical studies, the case-control study and non case-control study were more than case study. The disease after stroke were the most predominant. The rates of direct moxibustion and indirect moxibustion were similar.

4. After beginning 2000s, there were more studies of thermodynamic Characteristics. In the mid 2000s, there were more studies of new moxibustion method appearing.

Conclusions : We need more studies about various kinds of diseases, side effect and aftereffects. There should be convenient and useful methods of moxibustion.

Key words : Moxibustion, Clinical study, Physical characteristics, New Moxibustion method

* 이 연구는 2009년도 경원대학교의 지원에 의한 결과임

· 접수 : 2009. 9. 12. · 수정 : 2009. 9. 24. · 채택 : 2009. 9. 24.

· 교신저자 : 강미숙,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117번지 경원대학교 부속길한방병원 침구과

Tel. 032-770-1212 E-mail : cyberdoc001@hanmail.net

I. 서 론

灸法은 병증에 상응하는 부위를 艾葉이나 각종 약물을 이용하여 燒灼, 熏慰함으로써 얻어지는 온열성 자극과 피부 조직의 燃燒에서 생기는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을 이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¹⁾. 이는 침구 치료법 중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자침 치료 효과가 비교적 낮은 많은 병증을 치료할 수 있다²⁾.

구법은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 비교적 시술법이 간단하고 부작용이 적어 현재 한의학에서 치료학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다³⁾.

뜸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세계적으로 뜸에 관련된 논문도 2000년도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⁴⁾. 무작위 대조군을 이용한 임상 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 RCT) 연구의 경우도 1992년에 처음으로 발표 되어 이후 10년간은 2002년까지 총 10편의 논문만이 발표되었으나, 200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여 2005년도부터 매년 10편 이상의 RCT형태의 임상논문이 게재되어 뜸의 임상연구가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⁵⁾.

국내에서는 2007년을 기준으로 약 200억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뜸의 시술로 지급되었고⁶⁾,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연구에서 약 67%의 의료인이 뜸을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다⁷⁾.

뜸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뜸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좀 더 근거중심적이고 체계화된 방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뜸치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2000년 이후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발표된 국내에서 발표된 뜸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뜸연구 경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대상

본 연구는 한의학 관련 학술지 중 뜸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한 《대한침구학회지》, 《경락경혈학회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대한한의학회지》에서 2000년 이후 발표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어로 ‘뜸’, ‘쑤뜸’, ‘灸’, ‘구법’, ‘구치료’, ‘애구’, ‘애주구’, ‘구요

법’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논문의 참고문헌을 다시 검색하여 관련된 참고문헌을 다시 찾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4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2. 방법

대상 논문에 대하여 각 연도별 논문 편수 변화를 살펴보고, 주제별로 임상연구 논문, 물리적 특성 및 새로운 뜸방식 관련 논문, 문헌고찰 논문, 연구동향 논문, 실험 논문, 기타 연구 논문으로 분류한 뒤 각 항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III. 결 과

검색 결과 《대한침구학회지》 19편, 《대한경락경혈학회지》 9편, 《대한한의학회지》 4편, 《한방내과학회지》 13편으로 총 4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1. 연도별 분류

연도별로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3편⁸⁻¹⁰⁾, 2001년 3편¹¹⁻¹³⁾, 2002년 6편^{3,14-18)}, 2003년 8편¹⁹⁻²⁶⁾, 2004년 4편²⁷⁻³⁰⁾, 2005년 5편³¹⁻³⁵⁾, 2006년 3편³⁶⁻³⁸⁾, 2007년 2편^{7,39)}, 2008년 8편⁴⁰⁻⁴⁷⁾, 2009년 8월 현재까지 3편^{5,48,49)}이 발표되었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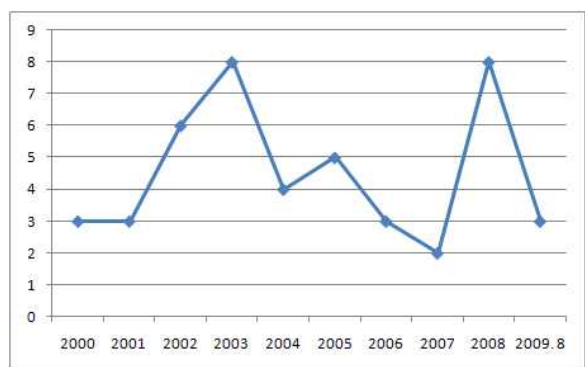


Fig. 1. The number of studies per year

2. 주제별 분류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임상 논문이 23편^{9-12,22-26,30-36,38-44)}, 물리적 특성 및 새로운 뜸방식 관련 논문이 9편^{13-15,27,29,37,38,45,49)}, 문헌고찰 5편^{3,8,17,18,21)}, 연구동향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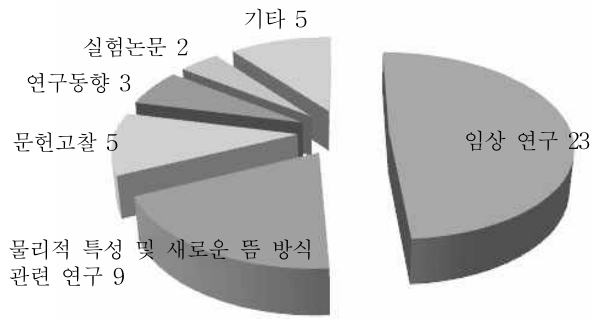


Fig. 2. The number of subjects

3편^{3,5,47}), 동물실험 논문 2편^{16,20}) 이었고 그의 기타 논문이 5편^{7,19,28,46,48}) 이었다. 본 조사에서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임상적용 결과를 발표한 논문이 1편, 문헌적 고찰과 함께 최근 연구동향을 발표한 논문이 1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 주제별 분류에 중복 적용하였다(Fig. 2).

1) 임상연구 논문

조사 대상이 된 45편의 논문 중 임상논문은 23편이었다.

이중 대조군 연구는 8편, 대조군 설정 없는 연구 논문 8편, 증례보고가 7편이었다.

대상 질환으로는 중풍과 병발한 질환이 9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계통위축증 병발 질환 2편, 말초안면 신경마비 2편, 고혈압 치료 2편, 특발성 파킨슨병 치료 2편이었고, 그 외 원발성 월경근관증, 요추 수술 실패증후군, 당뇨, 傷寒 後 厥證환자, 폐종양환자의 통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관련 각 1편씩이었다.

구법은 직접구를 시행한 경우가 12편, 간접구를 시행한 경우가 11편이었다. 간접구에는 약쑥엑스제 쑥뜸 방식, 무연 쑥뜸기같은 새로운 뜸방식이 포함되어 있었고, 쑥뜸 외에 격염구를 시행한 경우가 1편 있었다.

임상 시험 기간으로는 불명확한 것이 2편, 1회 단일 실험이 2편, 1~2주 이내가 7편, 3주~4주 이내가 3편, 5주~6주 이내가 3편, 8주가 4편, 8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2편으로 1~2주 이내가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했다.

뜸 시술 간격에 있어서는 1회/일 6편으로 가장 많았고, 6회/주 5편, 5회/주 2편, 2회/주 2편이었으며 1회/5일, 1회/2일, 1~2회/일이 각각 1편씩이었고, 불명확한 경우가 3편이었다.

구법 1회당 뜸 개수로는 간접구에서는 3장이 6편, 5장이 3편, 1장이 2편 순이었고, 직접구에서는 5장이

8편, 3장이 2편, 1장이 1편, 27장이 1편이었다.

치료혈에서는 단일혈을 사용한 경우가 5편, 2개의 혈을 응용한 경우 2편, 3개혈 응용 4편, 4개혈 4개, 5개 이상 8편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는 대부분 대조군 연구에서 대조군의 우의, 대조군 설정없는 연구논문에서는 뜸시술 후 유의한 효과 또는 호전으로 나타났으며,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취혈부위에 따른 구치료 비교 연구에서는 근위치료가 우의를 나타냈다.

타치료법의 병행 여부에 있어서는 배제한 경우가 9편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는 이전부터 시행해오던 환자의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만 유지하는 경우 타치료법이 배제된 것으로 간주하였다(Table 1).

2) 물리적 특성 및 새로운 뜸방식관련 논문

뜸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논문은 연소 특성에 관련된 연구가 5편, 새로운 뜸방식에 관한 연구가 4편으로 조사되었다.

연소 특성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상용 소형 쑥뜸의 열역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¹³), 대형뜸의 온도 측정을 통한 자극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14,15}), 마늘뜸의 연소 특성에 관한 연구²⁷), 직접구와 간접구의 온도측정 연구⁴⁵)가 있었다.

새로운 뜸 방식에 관한 논문으로는 비연소식 애구 방법 관련 연구 1편²⁹), 약쑥엑스제 뜸 방식 관련 연구 2편^{37,38}), 전립선 전용 전자 쑥뜸 발열 단자 관련 연구 1편⁴⁹) 이 있었다(Table 2).

3) 문헌고찰 논문

뜸요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은 총 5편이었다. 注重 灸法派에 관한 역사적 고찰⁸), 구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³)과 崩漏¹⁸), 帶下²¹), 憂鬱症¹⁷)의 구치료에 관한 문헌적 고찰이 각각 1편씩이었다.

4) 연구동향 논문

뜸의 연구 동향에 관한 논문은 3편이 있었다. 구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함께 국내외 연구 동향을 조사한 연구³), 국내외의 뜸연구 경향에 대한 연구⁴⁷), 뜸과 관련하여 무작위 대조군을 이용한 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 RCT)들을 분석한 연구⁵)가 있었다.

Table 1. The Analysis of Clinical Studies

학회지	연도	대상 질병	대상 인원	구법	치료 기간	치료 간격	회당 장수	사용혈	결과	타치료 병행
대침회	2008	원발성 월경곤란증	27	간	3주	2회/주	3	삼음교	유의	×
대침회	2008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19/22	간	불명확	불명확	3	근위-양백 사백 협거 지창 사 죽공 화료 원위-합곡 족삼리 중완 관원 태충	근위 유의	○
대침회	2006	요추 수술실폐증후군	51	직	8주 이상	1회/5일	9	명문 요양관 요수 기혜수 대장수 포항 관원수 질번 승부 환도 양릉천 현중	유의	×
대침회	2005	특발성 파킨슨병	29	간	8주	6회/주	5	백회 중완 족삼리 간수 비수	유의	×
대침회	2001	고혈압 환자의 혈압 강하	25	간	5주	2회/주	3	곡지 관원	호전	×
대침회	2000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14/16	간	불명확	1~2/일	1	지창 양백	유의	○
대한회	2006	당뇨병	23	간	12주	불명확	1	족삼리 중완 격수 비수 위수 췌수	유의	×
대한회	2005	특발성 파킨슨병	15	간	8주	6회/주	5	백회 중완 족삼리 간수 비수	유의	×
대한회	2005	고혈압 환자의 혈압 강하	30/31	직		1회	5	족삼리	유의	×
대한회	2000	중풍 환자의 배뇨장애	20	간	4주 이내	1회/일	5	기해 관원 중극	유의	○
한내회	2008	다계통위축증 환자의 배뇨장애	1	직	8주	6회/주	5	중극 기충 삼음교 수천	호전	○
한내회	2008	중풍환자의 기능회복도	21/21	간	6주	5회/주	3	합곡 외관 곡지 태충 현중 족삼리	유의	○
한내회	2008	뇌중풍 환자의 임상연구	64/67	간	6주	5회/주	3	합곡 외관 곡지 태충 현중 족삼리	유의	○
한내회	2007	傷寒後 厥證	1	간	약 8주	1회/2일	3	신궤	호전	○
한내회	2005	중풍환자의 연하장애	42	직		1회	5	전중	유의	○
한내회	2005	중풍 후 신경인성 방광	4	직	2주	6회/주	3	기해 관원 중극	호전	○
한내회	2004	올리브교소뇌 위축증 환자의 연하장애	1	직	4일	1회/일	5	전중	호전	○
한내회	2003	중풍환자의 상지부종	20/22	직	2주	1회/일	5	합곡 곡지 중저 외관	유의	○
한내회	2003	중풍환자의 상지마비	20/20	직	2주	1회/일	5	합곡 곡지 중저 외관	유의	○
한내회	2003	폐종양환자의 통증	1	직	약 4주	1회/일	5	폐수 격수 장문 기문 간수 능골변형부통처	호전	○
한내회	2003	중풍환자 배뇨곤란	23/20	직	10일	6회/주	5	기해 관원 중극	유의	○
한내회	2003	과민성대장증후군	1	직	9일	1회/일	27	중극 기해 관원 천추	호전	○
한내회	2001	뇌경색 병발된 만성 애역	1	직	11일	불명확	3	전중 심수 격수	호전	○

대침회 : <<대한침구학회지>>, 대한회 : <<대한한의학회지>>, 한내회 : <<한방내과학회지>>.
 직 : 직접구. 간 : 간접구.

Table 2. The Studies of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New Moxibustion Method

분류	연도	논문명	학회지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8	구법의 표준화를 위한 온도 측정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4	마늘뜸의 연소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2	온도 측정을 통한 상용 쑥뜸의 자극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승온 속도 및 유효자극기를 중심으로-	《대한침구학회지》
	2002	온도 측정을 통한 상용 쑥뜸의 자극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연소 시간 및 연소온도를 중심으로-	《대한침구학회지》
	2001	상용 소형 쑥뜸의 열역학적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새로운 뜬방식에 대한 연구	2009	전립선 전용 전자쑥뜸 발열단자의 개발	《대한침구학회지》
	2006	약쑥엑스제 쑥뜸방식에 의한 체간 온도 변화와 당뇨병 임상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6	약쑥엑스제 뜬 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4	비연소식구법 재료를 이용한 온열자극이 체열방사에 미치는 효과	《경락정혈학회지》

5) 실험 논문

뜸관련 동물 실험에 관한 논문은 2편이었는데, 백서의 급성신부전에 대하여 三陰交, 陰陵泉, 膀胱俞 單獨 및 配穴 애구 시술 비교에 관한 연구²⁰⁾와 三陰交, 膀胱俞의 침자극과 애구자극군의 비교에 관한 연구¹⁶⁾였다.

6) 기타 연구 논문

기타 연구 논문은 총 5편으로, 국내 뜬 요법 임상 실패과약을 위해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⁷⁾와 이를 바탕으로 한 면접조사⁴⁰⁾에 대한 보고, 한국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뜬관련 의료 정보를 평가한 연구⁴⁸⁾와 뜬의 대중화 및 유용성 방안에 대한 연구¹⁹⁾, 寒熱性向에 따른 神門穴 애구 효능의 비교 연구²⁸⁾가 있었다.

IV. 고찰

연도별 변화에서는 2003년과 2008년이 8편씩으로 많이 비중을 차지했고, 타 연도에서도 매년 2편 이상씩 보고 되고 있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총 45편의 논문 중 임상 논문이 23편(약 51.1%)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물리적 특성 및 새로운 뜬 방식 관련 논문이 9편(20%)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문헌고찰 논문 5편(약 11.1%), 연구동향 논문 3편(약 6.7%), 실험 논문 2편(약 4.4%), 기타 논문 5편(약 11.1%)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뜬 관련 논문 조사를 살펴보

면, 서⁵⁰⁾ 등이 1984부터 1997년까지 발표된 대한침구학회 논문을 조사하여 내용별로 분류한 연구에서 주제별 분류결과 뜬 관련 논문 총 34편 중 실험 논문 29편(약 85.3%), 문헌 논문 3편(약 8.8%), 임상 논문 2편(약 5.9%)이었고, 우³⁾ 등의 발표에서는 총 69편의 대상 논문 중 대부분은 실험연구였고 문헌고찰 9편(약 13.0%), 물리적 특성에 관한 논문 7편(약 10.1%), 임상연구 3편(약 4.3%)이었다.

기존 논문에서는 실험논문이 대다수이고 임상논문은 5% 전후의 비중이었던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임상 논문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뜬의 임상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실험 논문은 약 4.4%로 대폭 축소된 양상이었다. 문헌고찰 논문은 기존 조사와 이번 조사에서 비슷한 비중이었다.

임상 논문에서는 대조군 설정여부, 대상 질환, 구법, 임상시험 기간, 뜬시술 간격, 뜬시술 1회당 뜬 개수, 치료혈, 타치료 병행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조군 연구는 8편, 대조군 설정없는 임상연구가 8편으로 단순 증례보고에서 벗어나 뜬의 효능을 임상에서 입증하려는 시도들이 많았다.

대상 질환으로는 중풍과 병발한 질환이 9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계통위축증 병발 질환, 말초안면신경마비, 고혈압, 특발성 파킨슨병 등이 있었는데, 이는 한방병원 주요 입원 질환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한방병원 입원환자 수에서 1위가 중풍후유증, 3위가 졸중풍, 12위가 중풍전조증으로 중풍관련 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위가 요통, 4위가 구안와사 순이었다.

구법은 직접구 시행과 간접구 시행이 각각 12편, 11편으로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간접구 시행 연구 중에는 기존 쑥뜸 방식외 약쑥 엑스제 쑥뜸, 무연 쑥뜸 기같은 새로운 뜸방식을 적용한 경우가 3편이 포함되어 있었다.

임상 시험 기간으로는 2주 이내가 가장 많았다.

뜸 시술 간격에 있어서는 1주당 5~7회의 경우가 13편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던 영향으로 사료된다.

구법 1회당 뜸 개수는 간접구에서는 3장이 6편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구에서는 5장이 8편으로 가장 많아 구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료혈은 각 질환에 맞게 선혈하여 응용하였는데, 단일혈을 응용한 경우가 5편으로 이중 3편은 해당 혈에 구법 응용 시 각 질환의 치료 효과에 관한 논문이었다.

타치료 병행 여부에서는 배제한 경우가 9편(약 39.1%)으로 임상 연구에서 뜸의 고유한 효과를 입증할 만한 기초자료로 사료된다.

뜸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논문은 연소 특성에 관련된 연구가 5편, 새로운 뜸방식에 관한 연구가 4편으로 조사되었다.

연소 특성 관련 연구는 간접구에 관한 논문이 4편, 직접구와 간접구의 최고 연소온도에 관한 논문이 1편이었다.

간접구 관련 논문들은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상용 소형 쑥뜸 2종에 대하여 뜸의 연소와 관련된 열역학적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¹³⁾와 대형 뜸 2종의 온도 측정을 해서 연소 시간 및 연소온도, 승온속도 및 유효자극기를 중심으로 그 자극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14,15)}였다. 이는 모두 상용화된 뜸의 자극 양과 질을 정량화 하여 애구의 작용기전과 효능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상용화된 뜸의 규격화·표준화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새로운 뜸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직접구와 간접구의 최고 연소온도에 관한 논문⁴⁵⁾에서는 애구의 크기와 최고 연소온도와의 상관관계와 보사법에 따른 최고 연소 온도를 측정하고 비교하였으며, 이와 함께 강화미니뜸, 격강구, 격산구 최고 연소온도를 측정하여 구법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새로운 뜸방식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비연소식 애구방법²⁹⁾은 전통적인 연소방식의 애구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부착형 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은 온열자극 온도에

따라 피부손상 또는 화상이 유발되는 점을 고려하여, 온열자극을 낮추고 반면 자극시간을 연장시킴으로써 단시간의 연소에 의한 애구자극을 개선하고 또한 애구시 병행되는 화학적 자극을 고려하여 피부와 접촉하는 부위에 애엽 추출물을 도포한 짐착제를 개발하여 응용하였다. 약쑥엑스제 뜸방식³⁷⁾은 전통의 간접구 뜸 방식에서 약쑥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쑥진의 성분을 약쑥엑스제로 추출하고, 약리성분을 도포할 수 있는 약쑥패드와 PTC 세라믹 발열체를 사용한 발열단자를 구성하여, 인체에 약리효과와 온열요법을 함께 구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뜸을 적용하여 하복부 체열평균을 측정하여 하복부 온도의 변화량과 하복부 최고온도 도달 시간을 분석하여 이것을 링 간접구 쑥뜸과 비교하여 온도상승률과 최고온도 도달시간이 개선되었음을 보고하였다³⁷⁾. 또한 체간 온도변화를 검토하고, 당뇨병 환자 23례를 대상으로 구치료를 적용하여 유의성있는 결과를 보고하였다³⁸⁾. 전립선 전용 전자 쑥뜸 발열단자⁴⁹⁾는 기존의 약쑥엑스제 전자쑥뜸의 방식을 이용하여 회음에 전자 쑥뜸하는 전용의 발열단자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쑥뜸의 소개와 함께 전립선염 환자와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적용하여 호전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새로운 뜸 방식들은 화상, 구창, 쑥 연소 시 다량의 연기, 시술 후 쑥진과 재를 청소해야 하는 등 기존 뜸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누구나 안전하게 신체 어느 부위에도 적용할 수 방향으로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논문들의 발표 시기를 보았을 때 기존의 뜸에 대한 열역학적 분석들이 기초가 되어 새로운 방식들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뜸요법에 대한 문헌고찰은 총 5편이 발표되는데 구법의 역대 문헌과 관련된 논문이 2편, 특정질환에 관련된 것이 3편이었다. 이 논문들은 모두 2000~2003년 사이에 발표되었으며 이후 뜸관련 논문에서는 물리적인 특성에 관한 것들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였다.

뜸의 연구 동향에 관한 논문은 3편이 있었다. 우등³⁾은 구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함께 최근 연구 동향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구법의 역사, 구법의 종류와 방법, 애구법에 사용되는 쑥, 애구법의 생체반응 및 임상효과와 Pubmed 검색을 통한 국내외 연구동향 등 구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포괄해 놓았다.

박 등⁴⁷⁾은 1971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외 뜸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여 연도별 뜸 연구의 추세와 전체 뜸 논문 중 한국 및 여러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율, 실험 혹은 연구 방법 및 연구의 주제별 경향 등을 분석하

고, 뜬의 중요한 효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뜬 관련 논문이 증가추세에 있고 그에 반해 국내에서의 연구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상 논문들을 토대로 뜬의 주요 효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뜬의 제재에 대한 통계나 응용 방식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국가별로 뜬연구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한 제시나 연도별 뜬의 연구 경향의 변화에 대한 분석없이 단편적으로 논문 개수 비교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손⁵⁾은 뜬관련 모든 RCT 임상연구들을 대상으로하여 뜬을 주제로 한 논문의 수와 연도별 분석, RCT의 연구 주제와 임상 시험 결과 분석, 뜬의 종류와 대조군의 처치방법 및 치료기간, 임상시험의 대상 숫자 및 그룹설정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RCT 임상연구는 근거중심의 대체의학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과학적 근거 확립을 위한 권장되는 연구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동물 실험 논문^{16,20)}은 2002, 2003년에 발표된 논문이 각 1편씩으로 총 2편에 그쳤다.

기타 연구 논문에서 이 등¹⁹⁾은 뜬의 대중화 및 유용성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뜬에 관한 기초지식과 더불어 뜬의 대중화를 위해 표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논문들을 소개하고 뜬의 유용성을 정리하였다.

한 등^{7,46)}은 국내 뜬 요법 임상 실태파악을 위해서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이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30명의 한의사를 지역별로 층화임의 추출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의 뜬 관련 논문이 대부분 효능이나 뜬 자체의 특성에 주안점을 뒀던 반면 실제 이용하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뜬에 대한 인식과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임상 경험을 종합하는 객관화 작업으로써 비의료인의 뜬 치료가 난무하는 뜬시장에서 전문적 뜬 요법의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기반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강 등⁴⁸⁾은 한국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뜬관련 의료정보를 평가한 연구에서 2006~2008년까지 3년간 뜬관련 보도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454개의 기사 중 34개의 기사를 8개의 평가항목을 통해 평가한 결과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의료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신뢰도가

TV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났으며 영향력 있는 매체에 대한 조사에서도 TV 뉴스 바로 다음 인터넷이 차지하고 있다⁵¹⁾는 최근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볼 때 대중에게 뜬에 관한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한의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뜬에 대한 연구가 이전에는 동물 실험에 비중을 뒀던 반면, 최근에는 임상 연구에 비중을 두어 그 효능 검증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뜬 사용자인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실제적인 뜬 시술에 대한 연구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료 정보의 평가 등을 통해 뜬 관련 연구가 임상 효과 검증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중화의 방안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임상 연구에서 임상례와 대상 질병이 한정적이었고, 뜬 시술 방법에 있어서도 일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미흡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뜬과 관련하여 더 다양한 질병에 적용한 임상 연구, 시술 후 부작용 및 예후에 대한 연구와 편의성이 보장된 뜬방식의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의학 관련 학술지 중 《대한침구학회지》, 《경락경혈학회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대한한의학회지》에서 2000년 이후 발표된 뜬관련 연구 45편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도별 분류에서는 2003년과 2008년이 8편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 연도에서도 매년 2편 이상씩 보고되고 있다.
2. 주제별로는 임상연구 논문이 23편(약 51.1%)로 가장 많았으며, 물리적 특성 및 새로운 뜬방식관련 논문 9편, 문헌고찰 논문 5편, 연구동향에 관한 논문 3편, 실험 논문 2편, 기타 연구 논문 5편으로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임상연구 논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실험논문의 비중이 크게 감소되었다.
3. 임상연구 논문에서는 대조군 비교 연구 8편, 대조군 설정없는 연구 8편으로 단순 증례보고보다 많았으며, 중풍과 병발한 질환이 가장 많았고,

직접구와 간접구는 비슷한 비율로 시술되었으며, 임상시험 기간은 2주 이내, 뜬시술 간격은 1주일당 5~7회, 회당 뜬시술 개수는 간접구는 3장, 직접구는 5장이 가장 많았다.

4. 2000년대 초반까지 뜬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 중반부터는 새로운 뜬방식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5. 기타 연구 논문에서는 뜬의 유용성과 대중화에 관한 방안 등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VI. 참고문헌

1. 成樂箕. 현대침구학. 서울 : 행림출판사. 1987 : 56.
2. 김기현. 최신 침구치료학. 서울 : 정보사. 2002 : 119.
3. 우현수, 이윤희, 김찬환. 구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및 최근 연구 동향.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4) : 1-15.
4. 박혜정, 손창규. 국내외의 뜬 연구의 경향에 대한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8 ; 25(3) : 167-74.
5. 손창규. 뜬을 이용한 RCT임상연구의 경향에 대한 개괄.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9 ; 26(1) : 41-9.
6.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건강보험 통계연보. 2008 : 296, 546.
7. 한창현, 신미숙, 신선화, 강경원, 박선희, 최선미. 국내 뜬 요법 임상 실태 파악을 위한 전조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7 ; 24(3) : 17-31.
8. 임한제, 윤종화. 注重灸法派에 關한 歷史的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2000 ; 17(2) : 53-68.
9. 권순정, 송호섭, 김기현. 말초성안면신경마비 구치료 및 복합치료가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2000 ; 17(4) : 160-171.
10. 강경숙, 정은정, 문상관, 고창남, 조기호, 김영석, 배형섭, 이경섭. 중풍 환자의 배뇨장애에 대한 灸療法의 효과. 대한한의학학회지. 2000 ; 21(4) : 236-41.
11. 박재우, 전우현, 김진석, 홍종희, 홍상선, 박석규, 김진성, 류봉하, 류기원. 뇌경색 발병후 병발된 만성 애역(chronic hiccup)의 뜬치료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1 ; 22(1) : 109-12.
12. 이병훈, 김철홍, 서정철, 윤현민, 장경전, 송춘호, 안창범. 애구가 고혈압 환자의 혈압강하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2001 ; 18(5) : 70-6.
13. 이건휘, 이건목, 황유진. 상용 소형 쑥뜸의 열역학적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1 ; 18(6) : 171-87.
14. 이건목, 양유선, 이건휘. 온도 측정을 통한 상용 쑥뜸의 자극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연소시간 및 연소온도를 중심으로-.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2) : 114-27.
15. 이건목, 이건휘, 이승훈, 양명복, 고기덕, 서은미, 장종덕, 황병찬. 온도 측정을 통한 상용 쑥뜸의 자극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승온속도 및 유효 자극기를 중심으로-.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3) : 64-76.
16. 김민호, 박춘하, 김효은, 윤여충. 삼음교(SP₆), 방광유(BL₂₈)의 침자 및 애구자극이 흰쥐의 실험적 급성신부전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6) : 49-60.
17. 박상원, 송춘호. 憂鬱症의 灸治療에 關한 文獻的 考察.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2 ; 19(1) : 131-44.
18. 권세라, 양승정, 조성희, 진천식, 김효은. 崩漏의 鍼治療와 灸治療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2 ; 19(2) : 133-48.
19. 이건목, 이길승, 이승훈, 장종덕, 서은미, 최정선, 김양중. 뜬의 대중화 및 유용성 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3 ; 20(6) : 63-79.
20. 윤대환, 박종승, 김용성, 김정상, 나창수, 삼음교, 음릉천·방광수 단독 및 배혈 애구 시술이 Uranyl Acetate에 의하여 유발된 백서의 급성신부전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3 ; 20(2) : 55-66.
21. 양승정, 이진아, 진천식, 나창수. 帶下의 鍼治療와 灸治療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3 ; 20(2) : 121-35.
22. 최요섭, 김정진, 김태훈, 정우상, 문상관, 이경섭. 중풍환자의 상지부종에 대한 뜬치료의 유효성 검토. 대한한방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3 : 93-103.
23. 최요섭, 김태경, 정우상, 문상관. 중풍환자의 상지마비에 대한 뜬치료의 유효성 검토.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3 ; 24(2) : 283-9.
24. 김태훈, 나병조, 이준우, 이차로, 김은주, 윤상필, 이상호, 김정택,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배형섭, 이경섭. 폐종양환자의 통증에 구법을 적용한 치험례. 대한한방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3 : 24-31.

25. 윤상필, 김태경, 김이동, 김태훈, 정우상, 문상관, 이경섭. 中風患者 排尿困難에 대한 灸治療 효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3 ; 24(3) : 651-61.
26. 하상규, 김동우, 오항태, 조계창, 한창호, 이성환.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의 艾灸요법 치험례. 대한한방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3 : 230-7.
27. 이진목, 이진희, 조남근, 박소영. 마늘뜸의 연소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4 ; 21(4) : 31-51.
28. 김동훈, 김종덕, 김은정, 김경태, 류성룡, 정지철, 박영배. 한열성향에 따른 신문혈 애구 효능의 비교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4 ; 21(4) : 135-47.
29. 최원중, 김재효, 김경식, 손인철. 非燃燒式 灸法 材料를 이용한 溫熱刺戟이 體熱放射에 미치는 효과.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4 ; 21(3) : 21-38.
30. 김태훈, 나병조, 이준우, 이차로, 윤상필,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식, 배형섭. 연하장애를 호소하는 올리브고소뇌 위축증환자에 구법을 적용한 치험례. 대한한방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4 : 131-6.
31. 박상민, 이상훈, 강미경, 정지철, 박희준, 임사비나, 장대일, 이윤호.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의 뜸치료 효과. 대한침구학회지. 2005 ; 22(1) : 91-7.
32. 박상민, 이상훈, 정지철, 김건형, 박희준, 임사비나, 장대일, 이윤호.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뜸치료가 UPDRS 및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2005 ; 26(2) : 176-81.
33. 김보성, 장인수, 여진주, 이태호, 손동혁, 서의석, 강신화, 박민정, 임영진. 족삼리 애구가 고혈압 환자의 혈압 강하에 미치는 영향 ; 무작위배정 임상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5 ; 26(3) : 66-73.
34. 김태훈, 나병조, 이준우, 이차로, 박영민, 최창민, 선종주, 정우상, 문상관, 박성욱, 조기호. 中風患者의 曠下障礙에 臑中穴 灸治療가 미치는 效果.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5 ; 26(2) : 353-9.
35. 정동원, 홍진우, 박영민, 신원준, 이차로, 김석민, 선종주,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식, 배형섭. 중풍 후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 灸치료를 실시한 증례 4례. 대한한방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5 : 203-10.
36. 황정수, 이동화, 박희수. 요추 수술실패증후군 환자에 대한 구법의 임상적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6 ; 23(3) : 67-75.
37. 윤동엽, 조봉관, 이윤호. 약쑥엑스제 뜸 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6 ; 23(4) : 1-14.
38. 윤동엽, 조봉관, 배종일, 구자성, 김종원, 이현민, 조훈석, 신우진, 서상호, 박동일, 홍상훈. 약쑥엑스제 쑥뜸방식에 의한 체간 온도 변화와 당뇨병 임상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6 ; 27(1) : 165-83.
39. 최유경, 강미숙. 隔鹽灸와 四逆湯으로 치료한 傷寒後 厥證 환자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7 ; 28(1) : 187-91.
40. 강수우, 방성필, 정영표, 정효근, 이지은, 이정섭, 박단서, 위통순. 원발성 월경곤란증에 대한 삼음교(SP6) 애구의 임상적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8 ; 25(6) : 55-66.
41. 최철훈, 송호섭.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취혈부위에 따른 구치료 효과 비교. 대한침구학회지. 2008 ; 25(3) : 87-94.
42. 변형식, 박주영, 임정태, 김미영, 김창현,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식. 다계통 위축증 환자의 전침 및 뜸 치료에 의한 배뇨장애 치험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8 : 196-203.
43. 이상희, 김재규, 손연희, 정현윤, 김정훈, 권정남, 김영근. 중풍환자의 灸치료에 따른 기능회복도에 관한 임상연구. 한방내과학회지. 2008 ; 29(1) : 278-84.
44. 이상희, 김재규, 손연희, 정현윤, 김영근, 권정남. 뇌중풍환자의 구치료에 관한 임상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8 : 243-50.
45. 김윤홍, 이승호, 여수정, 최일환, 김영근, 임사비나. 灸法의 표준화를 위한 온도 측정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8 ; 25(2) : 129-38.
46. 한창현, 신미숙, 강경원, 강병갑, 박선희, 최선미. 국내 뜸 요법 임상 실태 파악을 위한 면접조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8 ; 25(1) : 85-97.
47. 박혜정, 손창규. 국내외의 뜸 연구의 경향에 대한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8 ; 25(3) : 167-74.
48. 강오석, 박희준, 김송이, 이혜정, 채윤병. 한국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뜸 관련 의료정보 평가. 대한침구학회지. 2009 ; 26(2) : 189-99.
49. 조봉관, 이윤호. 전립선 전용 전자쑥뜸 발열단자의 개발. 대한침구학회지. 2009 ; 26(2) : 41-8.
50. 서정철, 남상수, 이재동, 최도영, 안병철, 박동석, 이윤호, 최용태. 대한침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분석고찰. 1999 ; 16(1) : 125-46.
51. 오수정.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제14회 미디어의 영향과 신뢰도 조사. 서울 : 한국언론재단. 2008.